

##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연

### ■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몇 년 전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 아마 제가 오긴 왔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보는 날이다, 손해보는 날이라도 가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한번 해 볼만 하잖아, 손해날 것은 없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사회의 변화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언론은 항상 권력의 반대에서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서구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권력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견제장치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남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항상 시민사회의 편에서 있어야 하고, 권력과 맞설 때 여러가지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특권은 시민위에 균립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부터 제약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특권이자 자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력도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주의 자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

유를 누려야 하되 언론사주가 특권을 누려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 것이냐 하면 '기자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언론사주라도 침해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언론사주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방패막이로 하려한다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모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세금을 탈세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초법적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언론기자의 자유이고 한계는 취재·보도에 한정지어진 것이지 탈세의 자유나 그 밖의 어떤 초법적 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은 사주의 특권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자는 사주의 특권을 변호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법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의문을 해소시키는 논리 또한 없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이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중앙일보의 보광 세무조사에서 보았듯이 중앙일보는 지금도 견재하고 아직도 정부를 향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봐서 세금을 내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꿀릴 것이 없으니깐 더 자유롭게 정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자 너무 엄청나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미 덮어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흥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정이 안되면 언론을 조정할 수 없

게 됩니다.

언론장악 의도가 있고 없고 간에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흥정은 없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덮어버릴 수 없게 하는 데는 여러분들도(언론노조 소속 기자들), 많은 시민단체들도 한 몫 했고, 수많은 시민들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제 권언유착 청산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안하는 동안에는 언론이 은근히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권력은 언론에 기대할 게 뭐가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흥정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국가의 조세권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고, 언론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보도의 자유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각기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과 언론이 결탁·유착했던 비정상적 상태가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언론장악이니 떠드는 것은 의도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적은 언론사에 왜 재벌규모의 세금을 왜 매겼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출이 적은 언론사가 재벌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엄두 못 낸 부정을 그들은 당당해 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국가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이처럼 방만하고 근거조차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누구도 초법적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론사주는 건전한 경영자로 돌아가고 정부는 공정한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세무조사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질서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분야는 지나치게 독점돼 있습니다. 냉전적, 국수주의적,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0년 군사독재의 세월동안 억압돼왔던 새로운 사회적 논리를 국민들과 함께 찾고 공유해야 하는데 언론이 지나치게 불균형한 상태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런 역할을 공권력이 했습니다.

그러나 6월항쟁 이후 이런 공권력은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주먹으로 하던 것을 말로 해야 합니다.

대화-토론-타협을 통한 공론의 마당이 바로 매스컴입니다. 그런데 사회 제 세력간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합니다. 과거 30년동안 독재권력 하에서 형성된 불균형을 깨야 한다. 편향적 시각을 가진 1-2개 매체가 압도적 독점을 바탕으로 역사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맞게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가 군사독재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사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이 해체돼야 합니다.

기자는 사주의 횡포로부터 독립되고 인사 편집권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큰 과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두개의 수구·특권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들은 과거에 올바른 역사와 정의를 위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회가 군사정권의 군화발에 짓밟힐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다.

지식인, 학생, 서민, 노동자들이 모두 끌려가 개맞듯이 맞고 고문당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 서민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해왔고, 그들을 편드는 변호사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비열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도 아닌 사주의 자유, 자유도 아닌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구언론은 사주의 이익과 특권, 그리고 이것을 받쳐주는 수구적 냉전 논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산돼야 할 과거의 가치를 악착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특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밝히고 법적용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언론사주는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스스로 숭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갖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자유와 본질을 침해하는데 맞서고, 직장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의 편파보도에 매몰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자기 권리를 찾는 당당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을 수용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1-2개 수구특권 언론과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